Life-Changing Small Group

목장 모임 인도자가이드

2021. 11. 14. 주일설교 "시대를 이끌어 가는 사람" (행11:19-26)

DONGAN CHURCH

말씀 나눔과 적용(Word)

1. 중세시대에도 흑사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나눠봅시다.(행11:19)

☞ 14세기 중반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은 당시 유럽 인구의 1/3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전염병의 원인도 치료법도 알지 못했던 유럽인들은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흑사병을 신의 징벌로 여겼고 세상의 종말이 온 듯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당시 많은 작가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죽음에 대한 천국의 이미지는 절망과 두려움의 이미지로 변화되었고 죽음보다는 현세의 삶, 보이는 것과 지금의 감정이 더 중요한 시대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예배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와 말씀을 나누던 예배당은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과 심방도 자제되고 특히, 함께 슬퍼하고 기뻐해야 하는 장례식이나 결혼식의 참석 또한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억압되는 모든 상황들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에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의 간절함과 기도의 큰 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환란과 고난은 인간의 관점으로는 괴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즉 환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길을 더욱 열리게 됩니다.

2. 흩어진 무명의 전도자들의 복음전파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행11:20-22, 요10:27-30)

☞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19절) 이라는 표현을 볼 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스데반의 순교와 그 이후에 일어난 박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20절) 즉 안디옥 교회의 태동은 지중해 섬 구브로와 북아프리카의 항구도시 구레네에서 온 자신들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 그 몇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을 가리려는 그 몇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몇 사람들은 보잘 것 없고 그 존재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인물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말해보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행11:23, 행11:25-26)

☞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안디옥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쫓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안디옥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곁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 명하였습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곁에 딱! 붙어있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길 기도합니다.